

## 남궁 규 서장님께

안녕하십니까. 강원도지사 최 문 순입니다.

먼저, 지난 4월 4일 강원도 지역(고성, 속초, 인제, 강릉, 동해)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큰 격려를 보내주신 남궁 규 서장님과 홍천소방서 직원 여러분께 모든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.

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최초 발화 후 눈 깜짝할 사이 대형 산불로 변져 우리 도민들의 주거지 565세대와 생계 터전을 파괴하고 1,28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형 재난이었습니다.

하지만,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주신 소방가족 분들과 산림청, 각 공공기관과 군, 수많은 자원봉사자 분들 덕분에 악조건 속에서도 이른 시간에 주불을 진화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

특히 서장님께서 KBS 특별상(인명구조 공로)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입상하여 받으신 상금을 기초적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들었던 이재민들에게 쾌척해 주셨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라고 감동을 했습니다. 늘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홍천소방서 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에 내일의 희망과 재기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

저희는 이번 산불피해 복구를 재난을 이겨내는 좋은 모범사례로 극복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서 도민들을 안전히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든든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.

다시 한 번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, 홍천소방서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019년 6월

강원도지사 **최 문 순** 올림